

증권사, 이달 내 '세대교체' 마무리... 실적따라 희비 갈려

10개 증권사 중 7곳서 칼바람 SK, 메리츠·키움증권 등 교체 새 수장으로 리스크관리 역량 집중 대신, 교보증권 등 호실적에 재연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증권가 최고경영자(CEO) '세대교체' 바람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이 수장을 교체한 반면, 호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사들은 연임을 확정하기도 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10대 증권사 중 7개사 CEO들이 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증권가 내 세대교체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외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업계가 부진했던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장수 CEO들의 용퇴가 대거 결정되면서 증권가 새물결이 더욱 체감되고 있다.

최근 SK증권은 11년간 자리를 지켜온 김신 대표가 물러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전우종 각자 대표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각자 대표 체제를 꾸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증권가에서 손꼽히는 최장수 CEO였다. 당초 세대교체의 포문은 지난해 말 창업

〈주요 증권사 CEO 교체 현황〉

증권사	기존 대표	신임 대표	연임 여부
미래에셋	최현만	김미섭·허선호	X
NH투자	정영채	미정	X
삼성	장석훈	박종문	X
KB	김성현·박정림	김성현·이흥구	X
메리츠	최희문	장원재	X
신한	김상태	김상태	O
키움	황현순	엄주성	X
대신	오익근	오익근(미확정)	사실상 O
교보	박봉권	박봉권	사실상 O
하이투자	홍원식	미정	미정
SK	김신·전우종	전우종·정준호	X
한양	임재택	임재택(미확정)	사실상 O

멤버였던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사가 떠나면서다. 이후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이 모두 수장을 교체했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증권사들이 새 수장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국내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인한 총담금 부담이 컸던 만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악재를 만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다양

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변화되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호실적으로 증명... 대신, 한양, 교보 등 연임 성공

반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CEO들도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등은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재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현재 대신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

자 허가를 받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자본 요건을 맞추고자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종투사를 넘어 초대형 IB까지 노리고 있다. 종투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조원의 우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넘겨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종투사 진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연임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초대형 IB까지 노린다면 비슷한 경영 전략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신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연말 기준 2조8532억원으로 종투사 기준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며, 상반기 내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실적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156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8.7% 늘어나 선방했다.

교보증권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76억원, 영업이익의 703억원, 매출액 3조7430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1%, 36.1%, 7.9%씩 성장한 수치다.

한양증권 역시 지난해 기준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비율이 0%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25% 증가한 351억원을 달성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실적 먹구름에 연임도 '글썸'

아직 CEO 거취가 확정되지 않은 증권사 중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하이투자증권은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비율이 79%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 85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도 31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실적 부진은 부동산 총담금 설정 비중이 가장 큰데서 비롯된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 깎기' 논란과 관련해 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연임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깎기'란 대출을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은어를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분위기가 내부통제에 민감하고, 실적과 관련해 CEO 교체가 일어나는 기조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투자자 보호·주주권 강화로 신뢰 제고”

이순호 예탁원 사장 기자간담회 주주총회 전 과정 디지털화 추진 종합 투자지원 플랫폼 발전 계획



시 2026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탁원은 상반기에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에 맞춰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모니터링 화면 등 부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이 사장은 "법 개정 사항에 발맞춰 주어진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어떤 형태로든 파일럿 시스템으로라도 시범 삼아 체계를 운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국채 투자를 손쉽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제통합계좌 시스템을 올 6월에 가동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이용해 손쉽게 한국 국채를 관리할 수

있다. 앞서 예탁원은 작년 하반기 세계 최대 규모 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 스트림과 잇따라 국제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오는 5월 28일부터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가 거래 체결일(T)+2일에서 거래 체결일(T)+1일로 단축됨에 따라 담당 직원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1시간 안에 약 7만 건의 결제 지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는 예탁원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 사장은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금융시장 지원 선도'라는 목표 아래 다가올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조직·기 업문화를 재구축해 시장성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금투협-SSC,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 '맞손'

금융투자협회는 서울에서 베트남증권위원회(SSC)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과 양국 자본시장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베트남 투자촉진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서울에 온 베트남 재무부 호득푹(Ho Duc Phoc)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양국 대사관과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왼쪽부터) 호득푹 베트남 재무부 장관, 부티짚평 베트남 증권위원회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 캐나다ETF 자회사 사명 변경

호라이즌스 ETFs → 글로벌엑스 캐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5월부터 캐나다 상장지수펀드(ETF) 자회사 '호라이즌스(Horizons) ETFs' 사명을 '글로벌엑스 캐나다(Global X Canada)'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글로벌 ETF 시장에서 '글로벌엑스'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해외 비즈니스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 진출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해외법인의 ETF 브랜드를 '글로벌엑스'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라이즌스 ETFs'는 2011년 미래에

셋자산운용이 인수한 캐나다 4위 ETF 운용사다. 인수 당시 30억 캐나다달러(22억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현재 약 9배 성장했다. 2월 말 기준 320억 캐나다달러(233억달러)로 한화 약 31조원이다. 상품 수도 70개에서 119개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운용자산은 76억 캐나다달러 증가하며 300억 캐나다달러를 돌파했다.

'호라이즌스 ETFs'는 '글로벌엑스 캐나다'로서 캐나다 현지 투자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에 이은 글로벌 주요 ETF 시장인 캐나다 시장을 선도해 온 만큼, 글로벌엑스 캐나다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美반도체MV’ ETF, 올 개인순매수 516억

삼성자산운용

국내 상장 반도체 ETF 중 최대규모

삼성자산운용은 7일 'KODEX 미국 반도체MV'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가 516억 원으로 국내 상장 반

도체 ETF 32개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연초 이후 44영업일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이에 순자산도 2276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미국반도체MV는 엔비디아 투자비중이 26.8%로 국내 상장 반도체 ETF 중 가장 높다. 최근 1년 수익률이 89.7%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MV반도체 지수'는 KODEX 미국 반도체MV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로 약 171억달러(약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최대 반도체 ETF인 SMH(반도체 반도체 ETF)의 기초지수다. /원관희 기자